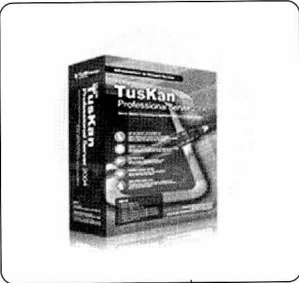




허치슨 터미널에 투스칸 솔루션 제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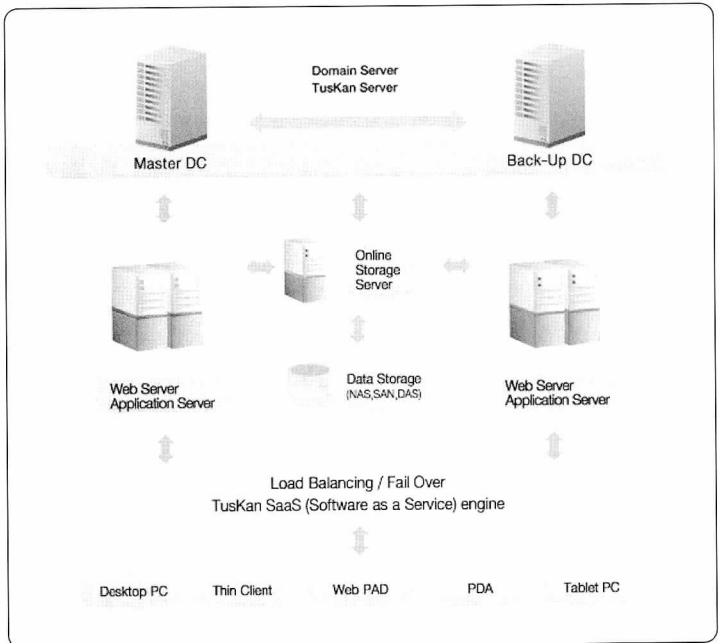
주식회사 티론(대표 최백준, <http://www.tilon.co.kr>)은 글로벌 기업인 한국허치슨터미널(주)(대표 최원종)에 무선 모바일 장비를 이용한 유무선 통합 '물류 선적 자동화 시스템' 구축에 서버기반 컴퓨팅 솔루션인 투스칸 프로페셔널 서버 2004(TusKan Professional Server2004)를 제공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.

허치슨 터미널은 전 세계 주요 항만에 분포되어 항만 및 물류 선적을 담당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로서 기존 크레인탑 컴퓨팅을 이용하여 물류선적 집계 및 모니터링 업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, 물류 선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기존의 유선 시스템뿐만 아니라 신규로 구축한 무선 인프라 및 모바일 장비를 이용한 유무선 통합 '물류 선적 자동화 시스템'을 구현하고자 (주)티론의 투스칸을 도입했다.

이번 투스칸 도입을 통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및 업그레이드 없이 중앙의 관리자에 의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일괄 배포하여 대형 컨테이너 크레인 및 지게차에서도 모바일 단말기를 이

용한 물류선적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, 모든 작업 현황 및 모바일 장비의 상태를 중앙 관리자에 의해 모니터링 되고 문제 발생 시 원격에서 제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4시간 무정지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.

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주식회사 티론의 이선택 부장은 "이번에 구축한 프로젝트는 서버기반 컴퓨팅이 항만터미널 분야에 최초로 적용되는 사례로서 허치슨 글로벌 중 부산에 있는 한국 허치슨 터미널(주)를 시작으로 전 세계 항만에 분포되어 있는 허치슨 터미널 '물류 선적 자동화 시스템'에 확대 적용되는 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"라고 말했다. **[K]**



무선 M2M에 주력

(주)에어미디어(대표 김승목, www.airmedia.co.kr)는 M2M(Machine to Machine)이라 불리는 '기계장치 간 통신서비스'에 주력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인 까닭에 대중에 익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, 서울시 버스 관제, 가로등 점등, 상수도 검침 등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활용되고 있어 결코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 회사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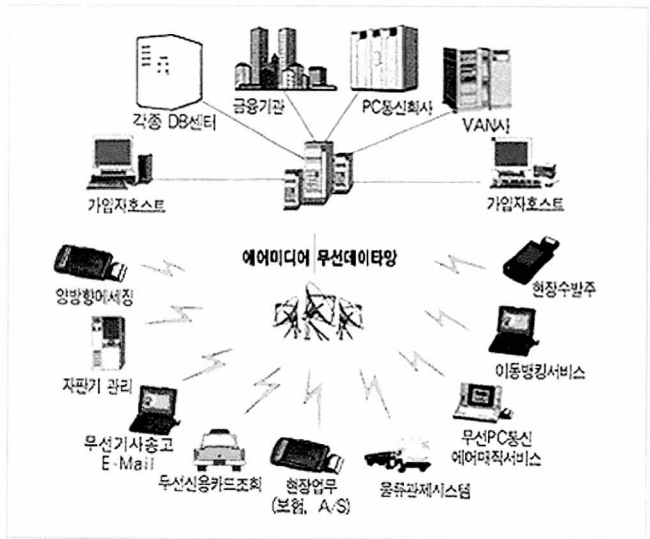
현재 에어미디어는 서울시, 안양시, 울산시, 수원시, 경기도 광역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SK enTrac에 ITS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'차량과 교통센터 간 통신'에 에어미디어의 무선데이터망이 활용되는 것이다.

기술적으로 ITS 통신서비스는 통신 주기가 매우 짧고 언제나 통신 연결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이동통신기술로는 그 구현이 어려워 일부 단거리 사설통신망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어 ITS 서비스 확산에 걸림돌이 되었다.

반면 M2M(Machine To Machine)에 최적화된 발전해 온 에어미디어의 무선데이터통신망은 24시간 온라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, 도시 곳곳에서 수집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최근 ITS, Telematics 통신망으로 각광 받으며 주도적인 사업자로서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.

에어미디어는 이러한 성과를 더욱 키워나가기 위해 주파수 최적화(RF Optimization)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, 전용 교환기 및 게이트웨이를 구축해 ITS 통신 서비스 이용 고객들의

▶ 무선데이터통신의 적용범위



만족도를 한단계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.

특히 ITS, LBS(Location Based Service)와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개발·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'맞춤형 기술 지원' 및 '망 구축 최적화 계획' 등의 차별화 된 서비스를 수립·지원할 계획이다.

또한 통신서비스 이용 사업자들의 통신패턴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통신요금을 설계·제시하여 ITS/LBS/텔레매틱스 사업자들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, 이를 통해 타 무선통신 사업자와의 차별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한다. **☑**